



무주우체국, 독거어르신 위한 삼계탕 200마리 기부

무주우체국이 말복을 하루 앞둔 9일 무주군청을 찾아 관내 독거 어르신들에 전해 달라면서 삼계탕 200마리(환기액 120만 원)를 기부하는 선물을 펼쳤다.

이날 오전 무주우체국 백인자 국장 등 우체국 관계자들은 무주군수를 방문한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에게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일부도 함께 살폈다.

백 국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이 삼계탕을 드시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주우체국에서 더 어렵고 지친 어르신들을 삼계탕을 지원해 주신데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 계북중학교애학회, 계북면에 생닭 나눔

최근 코로나19와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계북중학교애학회에서 9일 말복을 맞아 계북면사무소를 방문해 생닭(육계)나눔 행사를 펼쳤다.

이날 행사에서는 무더위에 지친 면민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계북중학교애학회에서 생닭(육계) 800마리를 제공했으며, 이는 계북면 78여가구에 전달했다.

육임준 계북중학교애학회장은 "우리 면민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나갈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어 수출 판로 개척 '쾌거'

순창군 적성면 전이수산, 장어 2500kg 말레이시아 진출

순창군 적성면에서 임보정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이수산(대표 이정)이 장어 2500kg(국내시가 1억원)을 동남 아시아의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날 20일 부산항에서 선적돼 수출길에 오를 예정으로 코로나19

로 인한 국내 소비둔화를 만회하는 한편 외화를 획득하는 일거양득의 쾌거를 이룬 것

전이수산은 양질의 장어를 길러내기 위해 항생제 투여를 줄이고, 순창에서 생산되는 순창매주를 사료로 활용해 장어의 육질이나 식감이 크게 향상되는 결과를 보여 국내 식도락가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조리 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장어를 초벌구이하고 진공포장과 소스를 넣어 함께 판매하는 등 소비자들이 바로 즉석에서 구워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고 있다. 전이수산은 이달 말 말레이시아에 수출할 선적분 외에도 미국내 교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LA지역과 이미 계약(1,000kg)이 성사되어 다음달 선적을 위해 출하준비 중이며 더 넓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정 대표는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순창매주장을 선보이겠다는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최복식 적성면장은 "그동안 양질의 장어를 생산하고 있었음에도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소비가 침체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해외시장을 스스로 개척한 전이수산의 장어 수출물량이 앞으로도 더욱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김제시, 지평선축제 온라인 출장가요제 예선전 개최

김제시는 지난 7일 대한민국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인 제23회 김제지평선축제 시전홍보를 위한 온라인 출장가요제 예선전이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여, 현장



참가자들의 오디션 영상을 촬영·편집하여 김제지평선축제 유튜브에 올리면, 유튜브 댓글도 심사점수에 포함하여 본선진출자 10명을 가린다. 예선전 영상은 유튜브 김제지평선축제 채널에 8월 12일 목요일에 업로드 될 예정이다.

또한 본선 출장가요제는 각 논밭, 공방, 하우스 상가 등 직장 마을 어디든 본선 진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출장노래방 컨셉으로 활영하고 편집하여 김제지평선축제 유튜브에 8월 말 업로드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 남원소방서 격려 방문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이 지난 6일 남원소방서 관내 지리산 뱀사골을 방문해 물놀이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사고 예방에 힘쓰는 119시민수상구조대 소방공무원과 자원봉사자를 격려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물놀이 장소에 구조대원 배치현황과 각종 수난경비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활동 시 대원들의 인신전과 주의를 당부하면서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의 격려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리산 뱀사골계곡은 우리나라 대표 계곡 중의 하나로 많은 피서객들이 찾아 매년 여름철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해 왔으며 피서객들의 안전을 책임진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경찰,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직원 감시장·포상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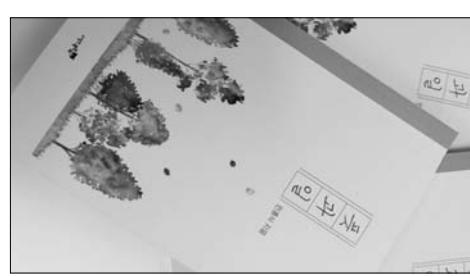
남원경찰서(서장 이동민)는 최근 남원시 소재 KB국민은행 남원지점, 남원농협 등문지점 방문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한 은행직원에게 감시장 및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은행 남원지점 창구직원은 고객이 현금 6,500만원을 찾으려고 보이스피싱이 의심스러워 112로 신고해 예방하는 등 같은 날 남원지역에서 2건 7,000만원을 은행직원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피해 예방했다.

이동민 서장은 "평소 관심을 가지고 세밀한 관찰과 신속한 신고로 보이스피싱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 주산면 산돌마을 민홍식 이장, 시집 '풋과일' 펴내



순창경찰, 보이스피싱 예방 우체국 직원에 감시장

순창경찰서(서장 김종신)는 순창군 복흥면 복흥우체국을 방문해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한 우체국 직원에게 감시장을 전달했다.

복흥우체국 A씨는 지난 29일 고객 B씨가 통장에 누군가 돈을 모두 인출하고 있으니 현금으로 찾아 집에 보관하라는 보이스피싱법 전화를 받고 정읍 전북은행에서 270만원을 인출 후 다시 복흥우체국에서 2,000만원 인출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하여 총 4,700만원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김종신 서장은 "보이스피싱 예방에 큰 도움을 준 금융기관 직원의 순발력과 용기에 깊이 감사합니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게 보내는 글에서는 "무한하고 깊은 사랑을 주신 보답으로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고 하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 이동민 경찰서장, 치안현장방문 실시

이동민 남원경찰서장이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혁신경찰관의 노고 치하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종양지구대·도통지구대 치안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이동민 서장이 주민과 밀접한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관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이동민 서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의 상황에 공감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격려 없는 분위기 속에서 소통을 하며 일선 지역경찰관들의 노고를 치하했고, 현장방문 격려행사는 지난 6일을 시작으로 관내 총 18개 관서의 치안현장을 방문하고 29일(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